

[유토피아]는 [블로우 업]에 이어 북한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블로우 업]이 표면적 기표로나마 북한이 명백한 데 반해 [유토피아]는 그마저 모호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가상의 이상향'처럼 보인다. 곳곳에 북한의 단서들이 눈에 띄지만 왜곡된 형태와 색채로 인해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양상을 띤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북한이라는 억압과 통제의 '디스토피아'를 역설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의 '유토피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블로우 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작업의 외양은 흡사 기록사진과 합성 사진처럼 매우 상이하지만, 작가는 발견된 이미지에 크고 작은 변형을 가하여 개입하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작업의 과정과 의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블로우 업]은 감시와 검열이라는 외부적인 통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토대로 변형한 것이다. 반면 [유토피아]는 아예 북한에서 제작한 선전용 엽서나 포스터와 같은 기성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블로우 업]이 원본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해 확대하는 다소 소극적인 변형에 의한 것이라면, [유토피아]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원본 이미지의 일부분을 왜곡시키고 색을 빼고 입히는 보다 적극적인 변형 과정을 거쳐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유토피아]는 [블로우 업]에서의 북한이라는 소재와 사진의 다양한 작가적 행위에 대한 탐구를 극단까지 확장시킨 작가의 의도적 선택이자 자연스러운 행보인 것이다. 작가가 [유토피아]의 재료가 된 사진들을 구한 곳은 남한을 대표하는 배용준과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이 동등하게 전형화되어, 이른바 정치적 함의가 결합된 이미지로 취급하는 일본의 한 수집품 가게에서다. 백승우가 그곳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유토피아]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북한이 정치적 소재가 아니라 개인적 관심과 작가적 의도에 부합하는 중립적 소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사진과 관련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작가적 행위에 대한 실험에서 [유토피아]는 백승우의 전 작업에서 변형과 왜곡이 가장 두드러진 '메이킹' 사진이다. 그리고 작가는 그러한 사실을 관객이 알아차리도록 내버려둔다. 건물의 일부분을 과장되게 높이거나 동일한 부분을 반복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변형은 동일한 요소를 반복하여 수직적으로 구축하는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참조다. 또한 전체적으로 색을 모두 빼 단색조로 처리하고 배경이나 일부 형상에만 발색이 뛰어난 원색을 사용해 극단적인 대조를 시도한 색의 변형은 디스토피아라는 북한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가리려는 선동적인 포스터의 선정적인 색상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결국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전환시키는 작가의 역설적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는 [유토피아]의 한 이미지를 13개의 부분으로 쪼개어 각 부분을 13개 국가로 전송하고 인쇄한 뒤 각 프린트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한 장의 커다란 사진으로 조합하여 전시한다. 전송과 배송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국가별로 상이한 인쇄물의 물질적인 차이, 그리고 그것들의 재조합이라는 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 그것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 최초의 사진적 행위와는 역추적이 어려울 만큼 멀어지게 된다.